

# ‘漁港 日本’ 誇示

## 제44회 全國漁港大會

일본 전국어항협회는 지난 11월11일 山口市소재 山口縣체육문화센터에서 어항관계자 3천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전국어항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전국어항대회의 목적은 일본 수산업 사명의 차원에서 어항정비장기계획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진과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의 확충,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촉진등 어항어촌에 관련되는 모든 시책에 대하여 전국의 어항 및 어업관계자의 총의를 결집하여 그 실현확보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항을 단순히 생산유통의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중심지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면서 아울러 도시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여유있고 윤택하고 활력이 넘치는 상호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어항어촌을 일체로 하는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기 장기계획의 책정을 획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어 이번 대회의 역할과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44회전국어항대회에서는 다음 6가지의 안에 대한 요지설명과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 1. 제8차어항정비장기계획촉진을 위한 예산증액 확보의 건

어항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의 거점으로서 또한 어촌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생활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산업 진흥상 가장 중요한 시설이므로 그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백해리 체제의 정착화등에 대응하여 주변수역의 효율적 이용, 정보화 시대에 적응한 유

통가공 체제의 확립 및 활력있는 어촌형성을 위해 1988년도부터 제8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촉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8차정비계획의 5차년도인 1992년도의 실시전망은 3천1백억엔으로서 그 진도는 72.4%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3년도에는 현재 매우 어려운 어업정세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항정비사업의 계획에 대한 강력한 촉진을 도모하도록 예산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 2. 차기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조기책정의 건

수산업은 2백해리 체제의 정착에 따라 해외어장의 대폭 축소, 근해의 어업자원 감소등 내외의 사회·경제정세변화 가운데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생산의 기반이며 동시에 생활의 장소인 어항과 이를 포함한 어촌과의 일체적인 정비수준은 아직 저조하다.

21세기를 목표로 지역진흥 및 풍부하고 아름다운 어촌의 형성, 매력있는 작업환경의 형성, 도시와 교류의 장소만들기, 생물과 공존을 목표로한 어항만들기 등을 위하여 1994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새로운 어항정비장기계획을 책정토록 요망한다.

### 3.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증액확보의 건

어업 및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및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어항의 정비와 도시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어촌의 생활환경을 총합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윤택한 어항환경형성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1993년도에는 살기좋은 어촌만들기를 향하여 집락배수처리시설과 생활도로등 어업집락의 생활환경개선을 총합적으로 행하는 어업집락환

경정비사업과 어항의 환경향상에 필요한 녹지등의 정비를 행할 어항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의 증액확보를 요망한다.

#### 4.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확보의 건

어항과 어항배후의 어촌을 안전하고 양호한 해안공간으로 형성하는 것과, 쾌적하고 윤택하며 매력적으로 해안을 창출하는 것은 풍요와 여유를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실현, 또한 어촌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1년도에 책정된 제5차해안사업 5개년계획에 따라 국토보전 및 해안환경의 정비사업으로 고조대책사업, 침식대책사업, 해안환경정비사업 및 공유지 조성호안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의 2차년도인 1992년의 실시액은 3백 23억엔으로서 36%의 진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3년도에는 어촌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해안환경의 창출등을 위하여 어항해안사업의 계획에 대해 강력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예산증액확보를 강하게 요망한다.

#### 5. 어항관계 생활관련중점화와 공공투자총실 임시특별조치 확보의 건

어촌지역에 있어서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을뿐아니라 어업에 있어서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소화, 고령화돼 가고있어 활력의 저하가 심각해 지고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은 매우 좋은 경관을 갖고있어 도시주민등이 자연과 접하는 장소로서 이용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배수처리시설, 생활도로, 녹지, 광장등을 비롯해서 어항, 어항해안 및 배후어촌지역의 생활관련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주요산업인 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요한 어항의 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낙후되어 있는 어촌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와 방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어항어촌 및 어항해안사업에 관계되는 생활관련 중점화와 공공투자총실 임시특별조치의 확보를 요망한다.

#### 6. 어항관계사업 지방부담액 경감의 건

정부는 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1985년이후 공공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인하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의 증가는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어항이 소재하는 市·町·村은 벽지낙도가 많으며 공공투자중에 어항관련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재원대책등 원활한 사업집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3년도에는 어항관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의 복원등에 의해서 총합적으로 지방부담액의 경감이 도모되도록 요망한다.

#### <결의문>

국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을 핵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 어업생산의 기반이고 동시에 생활의 장소인 어항과 이를 포함한 집락의 일체적인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항등의 정비수준은 기본시설에 있어서도 아직 미비하며, 전환기에 있는 일본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연안역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촌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어항어촌을 일체로한 사회자본의 충실로서 활력있는 지역조성이 이룩되도록 21세기에는 아름답고 활기있는 어항어촌만들기, 어항관계시책의 새로운 전개와 그에 따른 모든 사업을 더욱 촉진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전국어항관계자의 총의로서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실현을 강력히 요망한다.

- ① 제8차어항정비장기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증액확보
- ② 차기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조기책정
- ③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예산의 증액확보
- ④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의 증액확보
- ⑤ 어항관계 생활관련중점화 및 공공투자총실 임시특별조치책의 확보
- ⑥ 어항관계사업 지방부담액의 경감